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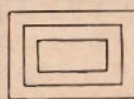
충현

11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11월 9일 발행
통권 제23호



권 두 언

범 사 에 감 사 하 자 !

75
년
추
수
감
사
절
을
맞
아

감사하자 !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헤아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비록 피로웠던 일 슬픈 일이 많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한 후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아니 그 무엇 하나 얻은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닌가.

지금부터 여러 해 전, 감사절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적이 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부(富)를 허락치 않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믿음을
주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명예를 허락치 않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지식을 허락치 않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것들을
하나도 허락치 않으셨으나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나이다.

오늘도 불평이 생기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시는 필자의 고백이 되곤 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

결국 감사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없이 감사자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이 그에 대한 참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참된 감사는 우리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중현의 성도들이여 ! 비록 에너지 위기와 함께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난 봄에 월남의 공산화와 함께 시작된 전쟁의 위험을 이만큼이라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눈 앞엿 것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준비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자. 감사하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마음에 참 기쁨이 오기 때문이다.

<주간>

차 례

<이달의 말씀> 열사람 중의 한사람 / 정상우목사	3
<기관소개 12> 주일학교, 중등부원 / 오태용	4
<에스겔서연구 3> 하나님의 종 에스겔 / 윤영탁	5
<특별기고> 선교에 대한 우리의 반성 / 서만수	6
<해외선교> 인도네시아 선교부 소식	7
<감사의 방법> 찬양 · 회개 · 믿음이 넘치는 마음 로 / 김일동	8
<감사절 수필> 감사절에의 염원 / 유순규	9
<친교회평가> 서로 사랑하라 / 정은표	10
<컬럼> 가을 · 직업 · 참삶 / 이형수	11
<제언> 기필코 확립되어야 할 문서정책 / 조선근	12
<구역공과> 12월분 · 사도신경	13
<교회뉴스>	14

11월의 행사

2 / 정기 제직회 · 재정위원회 · 성경학원 이사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9 / 남전도회 월례회 · 권사회 월례회 청년부 헌신예배
10 / 총동원운동 안드레회
16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여전도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23 / 추수감사절 구역권찰회 · 교육연구위원회
30 /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 주일학교 교사월례회

열 사람 중의 한 사람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께 감사 드린 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우리들의 감사생활에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I.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열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촌을 지나시게 될 때, 열 사람의 문둥병환자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고쳐주시기를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레 14:1-9).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한테로 가는 도중 그렇게도 추하던 자기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둥병환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은혜를 받은 열 사람의 문둥병 환자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열 사람중에 한 사람 10대1의 꼴이 됩니다. 열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감사생활에 깊은 반성을 하게 하시는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으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 비율을 따져본다면 10대1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감사생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역시 시원치가 못한 것입니다. 열가지 받은 은혜 중 한가지나 제대로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드리는 감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좀더 감사생활의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제단도 풍성해야겠습니다. 헌금의 표준을 십일조라 하지만, 감사의 표준은 10천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고 하셨습니다.

II.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열 사람 중에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눅 17:11-19>

문둥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친히 체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야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뜨거운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의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살전 5:18).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를 인사처럼 늘 말했다고 합니다.

정 상 우 목사

(본교회 부목사·청년부 지도)

III.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열 사람 중에 더욱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감사드리는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몸의 병고침받은 것을 감사드렸더니 영의 병고침과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병고침은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언제나 받은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저해로운 마음이며 언제나 받은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큰 복을 받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큰 축복의 결과요 또한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문둥병환자와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후사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도 받은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은혜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아홉 사람처럼 되지 말고 주님께 감사드려 더욱 큰 복을 받은 열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모두 되십시오.



실효 거두고 있는 안드레 전도방법

—교사 취임시 서약서 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함이라”(엡 4:13)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등부는 교회 설립 10년 후인 1963년 주일학교 교육 방침에 의거 중·고등부로 분리될 때 118명이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엔 400명이라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을 관리 지도하는 교사수는 50명, 현재로서는 교사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역대 부장으로서 조현명·김기정·전희문·신계택·임현덕 등 여러분 장로들이 수고하셨으며 1974년 이후부터 신계택 장로가 역임하고 계신다. 또 지도 교역자로는 조천일·이종윤·이정심·조혜수·예종탁·정관일·윤형철·지우목 등 여러 분들이 중등부 부흥을 위하여 힘쓰셨고 지금은 1974년부터 이연호 전도사가 열과 성으로 지도하고 계신다.

조직을 살펴보면 김준옥·이희수 두분 부감 집사 외에 3개 처장, 12개 과장 등이 있고 신임부 포함, 1학년이 열세 반, 2학년이 열세 반, 3학년이 열세 반씩 있다. 또 면려회 조직으로는 회장 이하 선교부를 포함 8개 부서가 있어 활발한 면려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배 및 집회로는 주일 오전 9시부터 주일 대예배가 있고 오후 5시에 오후 집회, 토요일 오후 5시의 토요일 집회가 있는데 주일 오후 및 토요일집회는 반별이 아닌 조별 중심이며 특히 토요일저녁집회 때는 전도사님이 요리문답을 강의하신다.

특별행사로는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목적으로 한 「하기 수양회」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겨울엔 고등부와 합동으로 「동기 수양회」를 가진다. 이 외에도 3개월마다 연구수업을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특강을 가지며 성가대를 주축으로 「작은 음악의 밤」을 가져 어

린 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키워 나간다.

중요한 면려회 활동으로는 「70인 전도대」를 발족, 전도훈련을 시켜 노방전도에 힘쓰며 병원전도, 학원전도 등에도 힘쓰고 있다. 추수감사절에는 손수 장만한 떡과 과일 등으로 교아원을 방문 위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중등부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마 25:23의 말씀을 표어로 삼고 ①말씀을 사랑하는 중등부 ②기도에 힘쓰는 중등부 ③선교하는 중등부를 지향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배가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실천방안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안드레가 되어 적어도 한 사람의 친구를 인도, 「와시 보라」(Come and see)는 안드레 전도방법을 쓰고 있는 메이렇게 한 결과 인도받아 나온 학생의 10% 정도가 결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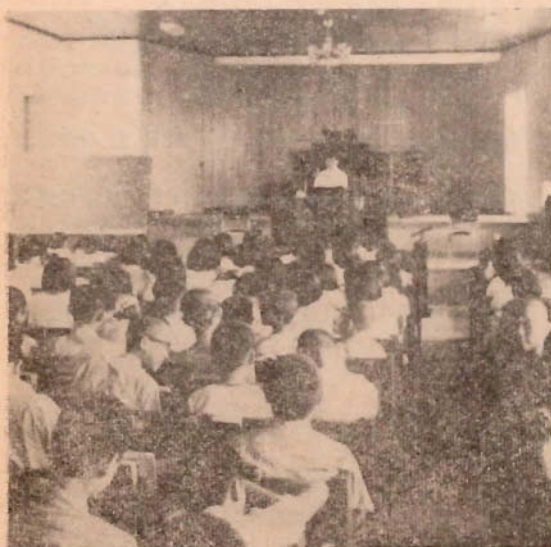
교사 관계를 보면, 교사 취임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결심하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임명 받은 교사는 주일 아침 예배는 물론 기타 집회에도 적극 협조하고 심방에 힘쓰며 특히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정기 교사회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천국 일꾼을 키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에도 고쳐져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200여명 밖에 안되는 60년대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학생 수가 배증하고 이에 따라 교사수도 늘게 되자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 둘 생겨난 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교사의 참여도랄까 충성심 같은 것이다. 사회 교육이 아닌 영혼 교육에는 지도하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학생들의 영혼에 무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일 아침 예배에는 필히 참석하고 공과공부에 임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만 학생들 공과 공부만 마치고 교사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아는 교사들이 있다.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에 심방도 안하고 또 정기 교사회에 참석을 안하니 중등부의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것이다. 어린 심령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교사가 많아질 때 우리 중등부의 배가운동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열심히는 교사들은 주일 아침의 교사 준비기도회에서 양떼들을 위해 특식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바는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등부에서 마련하는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태도를 견지해 주심사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 심방을 못한다는 것이다. 부지도라도 계속해서 일제심방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능력있고 박력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어린 영혼을 사랑 하는 교사들이 합심 노력함으로 이제 중등부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날로 부흥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오태용 기자>



하나님의 종 에스겔

윤영탁 전도사

<본교회 전도사·총신 강사>

<연재순서>

1. 에스겔은 어떤 인물인가?
2. 시대적 배경과 소명
 - (1) 시대적 배경
 - (2) 프로된 자에게 보냄받은 에스겔
 - (3) 파숫군으로서의 에스겔
 - (4) 표징으로서의 에스겔
3. 에스겔 선지의 메시지

(3) 파숫군으로서의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구약성경은 주로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칭한다. 에스겔에도 에스겔을 “선지자”라고 칭했다(겔 2:5, 33:33),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칭하시면서 “파숫군”으로 세우셨다고 밝히 말씀하신 사실이다(겔 3:17-21, 33:19).

물론 “파숫군”이라는 칭호가 다른 선지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사 21:6에서 말하는 “파숫군”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그 파숫군임을 암시했다고 보겠고, 또 렘 6:17의 “파숫군”은 히브리어에 따라 “파숫군들”(복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 56:10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파숫군들”이라고 했다. 위에서 말한 성취들에서는 “파숫군”이라는 칭호가 간접적으로 또는 다수를 말하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에스겔의 경우와같이 그 칭호가 누구를 지칭할인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달리 에스겔을 지칭하시면서 그를 “파숫군”으로 세우셨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일고(一考)할 필요가 있는 줄 안다.

“파숫군”(히브리어로는 “조취”라고 함)이라는 말은 “감찰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시 66:7, 잠 15:3 참조). 구약시대의 파숫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다만 다음의 몇 성취를 소개하는 것으로 족하겠다. (상하 18:24-27, 왕하 9:17-20, 사 62:6, 렘 51:12).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할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죄값을 네 손에서 찾은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지 그가 그 악한 마

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겔 3:17-19, 33:1-9 참조). 에스겔선지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했을 때 받았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제앙과 그로 인한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을 것을 알면서 받은바 이 파숫군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가? 이와같이 심각하고 긴박한 위기에 받은 사명인만큼 말할 수 없이 중대함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는 당장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불지 않고서는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고전 9:16) 또는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행 20:26)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의 심정을 잘 묘사해 주는 동시에 이러한 사명의식은 참 선지자들이 갖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와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사명의식은 없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겔 13:3) “여호와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겔 13:3) 자로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겔 13:10)고 하며 백성을 미혹한 뿐이다. 그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겔 13:4)와 같으며 “우는 사자”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것이다”(겔 22:25, 그리고 사 56:9-12 참조) 그러면 참된 선지자로서의 파숫군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며 그의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로, 파숫군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먼 거리를 내다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심령의 눈을 밝히사 계시를 보게 하시며 또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선견자”(히브리어의 “호제”)나 “선지자”(히브리어의 “로에”)라는 칭호들은 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파숫군은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받은 말씀 그대로를 “가감하지 말고”(신 4:2, 계 22:18, 19 참조), “성실함으로”(렘 23:28)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겔 3:17)라고 하신 말씀에 합당한 종이 될 수 있다.

셋째로 파숫군은 나팔을 불어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 여기 “깨우친다”라는 말을 “경고한다” 또는 “경계한다”라고도 사용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원어에서 번역되어진 것이다. 이 단어는 주로 “파숫군”에 연관되어 사용되었는데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된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총수의 거의 2/3인 열네번이나 사용

(7페이지에 계속)

선교에 대한 우리의 반성



인도네시아주재 한국선교부
선교사 서 만 수

◇…다음은 「태국 선교부 폐쇄와 우리의 반성」이…◇
◇…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주재 선교사 서 만…◇
◇…수 목사가 본교회에 보내온 특별기고이다. 사…◇
◇…정상 내용 중 일부를 삭제·보완하여 발췌…◇
◇…게재함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975년 7월 12일 기독교신보 1면에 게재된 「김순일 선교사 귀국 조치」에 관한 기사를 읽고 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이에 선교에 뜻을 둔 모든 분들과 관계자들에게 일언한다.

사실 태국 선교부에 관한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이 없으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중차대한 시기에 태국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기를 동역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차체에 총회의 선교 정책과 행정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를 지명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도움말이 될까 해서 몇가지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다.

해외 선교가 힘들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일단 선교사로 현지에 파송되고 보면 한국만큼 선교사를 우대하고 그 활동에 자유스런 나라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곳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면 이민성, 노동성, 종교성, 경찰국에 허가가 있어야 하고 집회 정기활동 보고는 물론 순회집회 일정과 지역을 명시,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하며 영주비자 소지자는 3개월 이상 인도네시아 국의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 선교부는 현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와 지식을 확보하여 선교 정책 결정 등에 있어 행정상의 미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907년 독노회 조직 직후에 선교사 파송을 결정한, 세계 교회에 그 유래가 없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찌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대열에 내놓을 선교 지침서 하나 못 바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총회 선교부는 사실상 개교회나 단체에서 재정 후원만 하면 현지에 대한 자료 수집이나 탐문도 하기 전에 파송을 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사업은커녕 자리도 못 잡고 유람을 하다가 유학도 해 보고 이민도 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선교 정책의 결여로 선교 행정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양심적으로 세계 선교 대열에 선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인가?

군대에 선교 지망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선교사는 한국에서처럼 대접을 받으며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착오이다. 적지 않은 선교 후보생들로부터 이미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결의에 찬 사연

들도 받아 본다. 순교의 각오가 있는 것은 좋지만 누구에게나 순교의 특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각오가 때로는 흐려져서 구차하고 추한 생활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만 국경지대에 파송되었던 모 선교사는 회람정교회로 개종한 일이 있고 선교비가 제때에 조달되지 못해 냉면 장사로 전락한 웃지 못할 비극도 우리 선교사상에 있었던 것이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결단코 선교사업을 값비싼 간판이나 장식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선교비를 공급하는 그것으로라면 선교사업은 심분의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수고와 정성의 팍팍을 이외에 기도의 눈물이 얹혀 보내져야 하며 선교사는 밤 한 술, 반찬 한 술갈 삼킬 때마다 회원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 팍팍 눈물 외에 땀물을 섞어 부을 각오를 매 순간마다 가져야만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세계를 향한 선교의 동역자들이여! 한국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의 사업은 오직 이 세가지 물로밖에 할 것이 없다.

첫째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는 게릴라의 전법으로 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업어서 개울을 건네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생각 말고 나 자신이 정점다리가 되어서 나를 딛고 더 많은 사람이 더 편안히 건너가도록 자기를 이름 없이 물을 각오를 해야 한다.

둘째로, 선교사는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일원으로 타민족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사역은 가르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며 섬기고 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외국인으로서의 당해국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하며 특히 그 나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권리와 보호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교사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교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언제 스폰서십을 취소 당할지(쫓겨날지) 모른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선교부의 경우는 1972년 6월 22일 이래로 종교법인체와 종합법인체(출판, 교육, 의료, 육영사업)를 구성하여 본 선교부의 법적인 기반을 굳힌 것이다.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선교사는 쫓겨나든 실종되든지간에 선교사업은 계승이 되도록 기틀을 잡아야 한다.

세째는,

강력한 선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비로라도 잘 테니 선교사로 파송만 해 달라는 의류 목적의 지망생은 있을 수 없다.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겨우 후원 교회나 단체에 보고서나 사진을 보내는 정도고 총회 선교부에는 중무소식인 것은 언어도단이다. 선교사가 1개월 이상 임지를 떠날 때는 사전 승락이 있어야 하는 조항도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 선교사 파송이 유학이나 이민이나 유람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네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당장 이곳이 좋다, 저곳이 효과적이다 하여 선교지를 옮기지 말고 일구일심에 공을 들여 파면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 것이다. 어려운 곳만을 택할 것도 아니고 쉬운 곳만을 택할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곳에 뼈를 묻을 줄을 작오를 해야 한다. 이 세상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든지 노력 없이 어떻게 보람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다섯째는, 민활한 중첩간의 정보 교환이다. 총회 선교부는 각 지로부터 보고를 종합하여 전국 교회 및 현지 선교사들에게 연락, 지시하여 주며 각 현지에서 현지에도 급변하는 선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양순다열도 한 모퉁이에서 한국 성도의 뜻으로 적은 금모나마 정성을 다 해서 선교관을 짓다가 태국 선교부 퇴거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 의견을 피력하였다. 모쪼록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5페이지에서 계속 >

되었다. 깨우치는 목적은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만일 파숫군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숫군의 손에서 찾으리라”(겔 33: 6)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네째로 파숫군으로서의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사 62: 6 참조)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고로”(겔 22: 30)라고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 18: 22 이하) 모세 (출 32: 32), 그리고 바울 (롬 9: 3)과 같은 종들을 요구하신다는 뜻이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사방에 울타리를 두르고 양떼를 그 안에 들어 가게 한 후에 자신들이 그 입구에서 맹수가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밤이 새도록 지킨다고 한다. 이러한 목자들이 참 파숫군들이다! 에스겔선지가 임박한 제앙에 대해 경고하며 회개를 외치다가 동쪽에게 살해당했다는 전설의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하여 종전통화와 같은 생명들에게 그가 파숫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드디어 에스겔선지의 경고한바와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게 되었다! (겔 2: 5, 33: 33).

인도네시아선교부 소식

▶ 9월 보고서

가. 보고사항

1. 발신 및 수신

북부 스마트라 오순절교회 신학교의 장학금 청원건은 본 선교부 이사회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라 1975년 9월 30일 알리시바반, 에디슨 시부티안, 롤리후파하엔, 로타아시흥봉 등 4명에게 장학금을 발송하다.

2. 방문 및 내방

1) 1975년 9월 8일 본 선교부 동부 자바 지부장 오바다 목사가(수라바야 주재) 사역 확장 협의하러 내방하다.

2) 1975년 9월 17일 자카르타-보고 그간 고속도로 건설과 주재하고 있는 현대건설 현장을 방문, 두 가정을 심방하고 3명의 교인을 접견하다.

3. 강단사역

1975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기독교단 소속 배맘부란 교회 주일예배 인도하다.

4. 기 타

1) 인도네시아어 성경책 통관

본 선교부가 주문한 새 철자법에 의한 인도네시아어 성경이 한국으로부터 인쇄되어 지난 26일 현지 세관을 통관하였으므로 10월부터 정글교회에 무상으로 배부케 될 것임.

2) 목사 안수

본 선교부 남부 스마트라 지부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베드로 전도사는 맵 선교부의 청원에 의하여 남부 셀레베스 육중 판당 소재 만민교단에서 1975년 9월 27일 목사로부터 안수 받다.

나. 청원사항

1. 선교관 준공을 위하여

아직도 지회는 자카르타 시외의 교인택에 머물고 있는데 속히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청원한 건축비도 일자가 지연되면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으니 속결을 바랍니다.

2. 건강을 위하여

현지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특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보고서

1. 선교관 입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건축중인 선교관에 일부를 정리하고 1975년 10월 9일 일단 입주하다.

2. 전화문제

본 선교부의 전화 581313번은 이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국장의 이견승인이 났으나 전화선 3100 m 대금 3,740불과 이전비 916불, 합계 4,656불이 지불되지 못하여 전화는 아직도 사용이 불가하오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양·회개·믿음이 넘치는 마음으로

김 일 동 전도사

<고동부 부지도>



누구나 다 알듯이 추수감사절 하면 구약의 대절기중 하나요 신약의 대절기중 하나로써 지난 해에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먹을 밀·보리를 풍성하게 주신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추수감사절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란에서 1621년 가을에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가 이웃 인디언(Indian)들을 3일간 필그림(pilgrim)들과 결합시키려고 초대하여 축제의 즐거운 리크레이션(recreation)과 계절의 축하금으로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다. 19세기 말엽 추수감사절은 뉴잉글랜드(New-England)를 통해서 제도화되었고 1863년 링컨(A. Lincoln)대통령에 의해 대축제로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칠면조와 서양호박과 파이(pie)로 지내는 전통적인 잔치가 국민문화의 일부분으로 토착화되어 내려왔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것이 그 달의 네번째 화요일로 1941년에 의회의 행사로 바뀌었다. 최초로 캐나다에서 1879년 11월달에 대축제로 감사절을 정하고 지금은 매년 10월 두번째 월요일에 지내고 있다.

이상이 미국의 감사절을 지키는 유래를 대략 살펴본 바 그들이 순결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험한 바터를 건너 신천지로 가서 갖은 역경과 고난과 본토인의 위협을 받아가며 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그들 속에 뿌리깊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개척자들만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했고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했다.

그러면 이렇듯 뜻깊은 감사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느헤미야 1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찬송」하는 일을 말았다 함의 「찬송」은 감사의 방편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을 말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여호와께 찬송을 자나 깨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부

름으로 감사를 물려야 할 것이다.

(2) 속죄를 위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레위기 7장 12절에 보여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를 드릴 때에 그 재물은 하나님과의 친목과 교통을 나타내는 감사의 제물이었다(레 17:13, 15; 22:29).

(3)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므로 감사를 드릴 것이다.

헬라어의 「유카리스티아」는 이것을 잘 설명해 준다. 즉 「유」의 뜻은 “잘, 좋게, 행복하게”라는 뜻이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다.

우리는 말은바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려나오는 즐거움을 하나님께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도의 고귀한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담을 회롱하는 말을 하므로 감사할 줄 모른다(엡 5: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구속적 의지 전반에 대한 감격에 넘치는 감사를 마음으로 바칠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감사라 할 수 있다(딤후 2:1; 4:3, 4).

또한 빌립보 4장 6절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를 그 심령에 영접한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과거에 당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뿐 아니라, 미래사를 위하여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이루어주시길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해야 한다(고후 4:15; 9:11, 12; 행 24:3; 롬 4:9; 7:12).

(4)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혜)으로 감사해야 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불결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의(義)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즉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눅 6:32, 33, 34; 고전 15:57; 고후 2:14; 8:16; 9:15; 빌립 2:19; 롬 6:17; 7:25; 골 3:16; 4:16; 1; 딤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

가을에 부치는 감사에의 염원

유 순 규

〈대학부회원 · 3년〉

거리를 땀구는 가을 낙엽들, 혹시 저를 주위 채갈피에라도 고이 간직해주었으면 하는 일념뿐인 그들에게는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절의 감각을 잃은채 삶을 찾아 헤메는 두터운 발자욱만 안겨줄뿐, 소리쳐 "나말이요 당신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기쁨,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안고 왔단 말이요." 아무리 해보아도 역시 현대인에게 추위에 대한 공포만 예견되는지 마냥 웃기만 추스릴뿐. 가을, 결실의 특별히 날을 정해 먼 산이나 오를라치면 그제서야 감탄사(?)가 나올정도로 고 시골 돌담길 한 귀퉁이 감나무의 빠알간 감을 보고 서야 결실의 의미를 아는 우리자신을 다시금 정리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끓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올라 우리의 생의 순간 순간을 마음껏 음미하며 활짝열 열 굴로, 받지 않고서도 줄수있는 감사의 생활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것은 샘물은 어디서부터 솟아나오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결코 상황에 따라 굳어지는 마음들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 선, 미의 아름다움이 삶의 질서로 연결져워져 조화의 미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마음의 에덴을 찾아 굳게 드리워진 커튼을 활짝 젖혀봅시다. 우선 우리의 뜨거워진 마음에 기쁨을 담아봅시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떠나 환희로 그득찬 빛의 산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에 차있는 그대로를 행위로 옮기기에 스스로가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헤치고 밀쳐지 못해 자기 〈존재〉의 부정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 손길을 펴서 우리의 굳어진 입가에 미소를 띄게 아무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해도 서로를 상대적 수단으로 보는 그 눈을 씩어합니다. 세계를 고통과 고민으로 물아넣는 뼈물어진

마음을, 영광을 어두움으로 변하게하는 비판의 소리를 씹어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고 참 성도의 길을 걷게하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더우기 우리의 감사는 허공만 울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께 드리는 감사가 늘 생활로 나타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말로 나타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늘 생활속에서 감사드리고 싶어도 언어적 습관이 비방, 비평, 자기분위의 비판을 주로 하는 것이라면 결코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마음속에 기쁨을 그득담고 있어도 「은근」을 자랄로 여겨 바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또 표현하려는 순간 상황은 또 달라져 그만 자신의 마음속에 담은 것을 사그려드리고 마는 생활로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 은근의 배일을 과감히 벗고서 감사의 표현을 정확히 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해도 단하나 조물주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말로 표현해봅시다. 세상의 모든이가 바라는 웃자리에 올라서면 무엇합니까? 권위의식을 자신에게 고조시켜 무엇을 어떻게 채운단 말입니까? 열쇠는 우리 눈에 쇠워진 무관심, 무감동, 무표정의 안경을 벗고서 항상 마음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 어디에 어두움이 없는가고, 그 어디에 멸망의 씨앗이 깃들지 않았는가고.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뽑아버립시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이 작업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뽑아버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지녀야합니다. 이걸이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힘도 나눌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뒤틀린 에덴을 갈아엎어 봄의 새싹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희망과 기쁨을 다시금 마련해봅시다.

넋은들에 익은곡식 황금물결 뒤흔치며—사과 두알을 두손에 안은 아이 하나가 찬송을 부르며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에덴과도 같은 마음을 지닌 저 아이에게서 우리는 가장 적은 일, 짧은 순간에도 무조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찾아봅시다.

다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문을 열어 진정한 생의 감사로 일관된 삶의 열매들을 주안에서 이 가을에 한껏 맺어 봅시다.

◇ 감사절의 유래 ◇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에서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던 개신교의 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대륙으로 건너갔다. 이들을 가리켜 청교도(puritans)라고 부른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이민들은 갖은 고생을 겪고 1623년에 비로소 훌륭한 수확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게 된 것이 감사절(Thanksgiving Day)의 처음이다. 그 해 11월에 당시의 행정관 브랴포드(Bradford)가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였으나 정식으로 국경일로 된 것은 워싱턴이 1786년에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한 뒤부터였다. 그뒤 링컨은 감

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개정하였다.

전 루즈벨트 대통령(Franklin D. Roosevelt)은 1939년에 새 판례로서 11월 세계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였으나 미국 여러 지사들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늘날은 미국만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그 해의 추수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특별한 순서로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특별헌금을 바치며 외국 선교사업에 충당하기도 한다.

우리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세계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는데, 올해는 내췌주일인 11월 23일에 지킨다.

서로 사랑하라

— 성도의 일체감 속에 협력하여 헌신하도록 —

『제 1 회 총현교회 친교대회』가 지난 10월 9일 (목) 시내 五산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2,300여명의 성도가 모였고, 행사 진행을 위한 임원진만도 모두 115명에 8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이번 행사는 인원 동원이나 진행규모에 있어 단 일행사로서는 우리교회 사상 최대규모였다고 볼 수 있었다.

총현의 성도전체가 주 안에서 친교행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이번 행사는 또한 영아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처음으로 교인 전체를 총동원하여 실시하였다는 데도 크게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대회진행을 위한 계획·진행·종결의 각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돌이켜봄으로써 차후 또 다른 이같은 대회진행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번 대회의 결과를 총현의 전체 성도들에게 알리려는 데 이 글을 쓴 뜻이 있다.

1. 처음으로 총현교회 친교대회를 열었다 — 교인 전체가 참가하도록 한 까닭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처럼 유쾌하고 보람된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찬송 592장」는 이번 대회의 주제가 암시해주듯이 성도간의 사랑의 표현의 한 단면을 보기 위하여 이번 대회를 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일이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조직의 구성원이 몇 백명을 넘게되면 중적인 관계는 몰라도 조직의 획적인 유대관계가 틈 없이 꼭 조여지기는 껴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몇 천명을 해아리게 되면 이같은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친교회를 열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교회된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행하고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면 교인이면 누구나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인 전체가 참가하도록 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친교대회를 위하여 준비하였는가?

교회 전체가 참가할 수 있는 친교대회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연초의 당회에서였다. 암송·퀴즈·찬송·친교·체육 등의 5개 분과로 나누어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즉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회진행의 현실성 여부를 놓고 재검토한 결과 행사의 내용을 대폭축소하여 체육대회를 중심한 친교행사만 실시하기로 하고 처음 계획을 수정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여류행사가 증폭되는 등의 이유로 정작 실제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은 8월부터이다.

축박한 시일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친교대회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당회원을 비롯한 교회내 각계 대표들이 함께 준비하는 일에 힘을 모았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9월 첫주부터는 매주일마다 준비임원회를 열고 준비기도회는 물론 임원교육, 임원 현장훈련까지 실시하기도 하였다.

3. 디이 데이(D-day) 그날의 스케치 —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0월 9일은 특별히 예비된 날처럼 하늘은 더 없이 맑고 푸르렀다. 五산중고등학교 교정 또한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위치·크기·부대시설 등이 안성맞춤이었다.

정문을 들어서서 혼잡처럼 생긴 좁직한 명함을 하나 달고 무성하게 우거진 가로수길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곧 운동장에 이르게 되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료와 빵등을 팔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집」이다.

운동장 중앙의 트랙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6개의 본부석 테트가 나란히 있다. 남쪽 스탠드에는 동군·서군·남군·북군 등의 4군이 군기를 펴리며 응원에 열을 올리고 있고 동쪽으로는 굽이치는 한강을 등으로 하고 개신문이 우뚝 서있다.

이날의 전체 진행은 한마디로 질서정연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 참석하였던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물론 미숙한 점을 굳이 지적해 내자면 하나 둘이 아니겠지만 2천명이 넘는 남녀노소를 한자리에 참석한 그같은 대규모행사가 처음 치고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화려하고 위엄있게 펼쳐진 입장식을 선두로 개성있는 가장행렬과 열면응원등은 이날 대회를 띄어 인상 깊게 하였다. 거기에 「인도네시아의 집」은 적시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살려 인도네시아 선교관 건축기금을 위해 8만여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며 점심식사를 각

구역별로 3~5가구씩 둘러앉아 실시하도록 권장한 것은
친교대회의 취지를 한껏 살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매사는 끝맺음이 좋아야 한데 —끝맺음은 어떻게?

대회가 끝난 뒤 대회장 청소와 정돈에 있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외부와 내부에서 동원한
수많은 장비들과 비품을 단 한가지도 파손하거나 분실
함이 없이 잘 정리되었다.

또한 10월 13일 오후에는 모든 임원을 초청하여 대
회의 준비·진행·종결 등 각 과정에 있어서의 잘한 점
과 못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평가회를 열고 그
결과를 차기 대회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五山중고등학교에 감사패와 사례품을 전달하
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5. 친교대회 이후—무엇을 얻었는가?

처음 예상한 최대동원원은 2,000명, 그러나 실제로
는 2,300여명이 동원되었다. 여기에서 중현의 성도들
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큰 일에도 하나가 되어 서로 협
력할 수 있으리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러한 가능성의 발견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던 모든 교
인 한사람 한사람의 질서있는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
었고 이는 또한 이제까지 우리교회 교인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받아온 훈련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회운영 경험에 있어 대규모 대회운영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회 목표였던 성도의 일체감으로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후 여
러가지 교회활동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6. 보다 나은 다음 대회를 위하여— 잔소리 몇마디

① 준비일정은 적어도 6개월은 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조직과 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임원은 기능과 시간여유를 고려하여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구역권찰회의 조직을 보다 더 활용하여 준비과정
의 일부를 맡게 하여 자율성을 기른다.

④ 프로그램 작성을 다양하게 하여 어른 또는 청소년
등 어느 한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좌석배치에 있어 불평이 없도록 하고 특히 경비
와 청소에 유의한다.

⑥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도록 한다.

7. 맺음말

감사하다는 말 밖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마는 네
년 친교대회는 한층 더 발전된 대회가 되도록 교회는
교회대로 각각의 성도는 성도대로 서로 협력하여 헌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점은표 감사>

1/200 자. 김정

가을·직업·참 삶

이 형 수

오텐리보즈의 선율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면 생
각나는 사람이 있다.

다소 공해(公害) 피해의식이 덜해 지는 가을의
일이라서 그런지 그 친구를 생각하면 늘 신선한 기
분이 되곤한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나 독특한 점이 있는 것
은 아니었다. 머리가 남보다 조금 우수하다는 것
이외에는 그저 평범할 뿐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자취, 하숙, 가정교사를 전전
하며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그
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재벌회사라고 손꼽히는 회
사에 어렵지 않게 입사했다.

친구들은 모두 기뻐했고 이제 그가 안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같은 친구들의 생각은 곧 깨어지고
말았다.

말없이 잘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가 입사 10개월
만에 불연 사표를 내던지고 나와버렸던 것이다. 그
리고는 보수가 1/2밖에 안되는 어느 여자중학교의
국어교사로 부임했던 것이다.

「정말 난 참을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더 이상 견
딜 수가 없더군. 나의 모든 생활을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바칠 것을 요구하더군. 아침출근, 엄격한
사규(社規)가운데 저녁 7~8시에 퇴근. 회사일에
관한 생각이 퇴근후까지 연장, 그리고 이와같은 생
활의 반복, 반복, 나의 하루 24시간은 잠자는 몇
시간 외에는 전부 회사에 속해 있는 생활이었어.
만 회사보다 조금 나은 보수와 안정성을 담보로 모
든 것을 회사를 위해 바치라는 거야. 물론 긍정적
으로 받아들여 그 숨막히는 가운데서도 회사의 요
구에 응하며 회사에 충실한 종으로서 남과의 경쟁
과 일하는 기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같은 결정에 단안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내
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야. 난 항상 “삶은 하
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와같은 과
정에 나의 모든 생활을 쏟고 싶지가 않았고 나의
남은 시간들은 보다 “주앞에 충실”하고자 하는 데
바치고 싶은 마음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었으니
까.....」

참! 그리고 그는 회사에 다닐 때는 여름이 더
운지, 가을이 상쾌한지, 가을 하늘이 파란지를 논
까지 못했다고 하며 “참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
라고 다소 분개하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덧 금년 가을도 다해가고 있다. 금년엔 그
깊고 깊은 가을하늘을 들여다보며 어릴아이같은 웃
음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필코 확립되어야 할 문서정책

조 선 근 집사

<영아부부장·교육연구위원>

주일마다 우리교회는 30여종의 각종 유인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은 필자가 작년 조사한 수의 배에 가까운 수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또는 교인수 및 교육인구 증가에 따른 기구 확장과 거기에 수반된 업무의 다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행정은 문서행정이라 할 만큼 문서로 시작하여 문서로 종결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서행정이나 또한 문서활동이 뭔가 체계화되지 못한 채 관리·운영되고 있어 가끔 문제가 되고 있다.

몇해 전부터 우리교회에서는 문서에 대한 제반 규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위원회 행정분과가 주동이 되어 1973년 11월에 주일학교 공문서규정과 공문서 처리규칙을 만들어 다음 달인 12월에 실무자들에 대한 행정강습까지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교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산적(山積)해 있지만, 1976년에는 기필코 성취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서 문서정책의 시급한 확립을 들어 몇마디 제기한다.

(1) 문서의 표준화·규정의 실현

일관성있는 사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문서의 표준화와 문서취급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제정된 것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서류의 규격이나 양식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식, 통계에 둔감한 무의미한 기록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지금 정부의 공문서 보관은 법령으로 제정되어 실행한다. 그러나 우리네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다 해도 시행되지 않으므로 각부서·기관마다 보관할 의의가 없는 기록물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선 사무능률화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2)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유능한 문서취급자를 원한다면 해마다 연초(年初)에 실무자들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필자가 만난 문서취급자들 중에는 주일학교에 공문서에 대한 규정 및 처리규칙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표준화된 양식의 기밀요령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문서관리의 합리화란 이뤄질 수 없다.

(3) 문서전도 요원의 육성

특히 문서전도 요원 및 지도자는 사명감이나 의욕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이는, 문서전도인이 되려면 ①

신학적인 교양과 ②문학적인 재능에다 ③편지에 따른 기술까지 겸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서전도요원을 기대한다면 연수회 등을 통한 실무자 단기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4) 연보(年報)의 계속적인 발행

몇해 전, 「충현 20년사」 발간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이들이 한결같이 토로한 아쉬움은, 그 해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보(年報) 발간의 필요성이었다. 이것이 실현만 되면 무의미한 문서를 오래 보관해야 되는 부담이 없이 능률적인 행정 간소화가 실현되며 앞으로 나올 「충현 25년사」 「충현 30년사」 발간에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수 있다.

(5) 문서 보관·자료실의 설치

산재해 있는 서류 및 문서를 한곳에 모아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보를 비롯하여 매 주 발행되는 유인물을 집중시키는 일은 전체의 문서 관리상에도 편리하다. 여기에 국내외 정보나 자료를 구입·비치하여 문서선교자료실을 겸용하면 다목적 문서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6) 특색있는 문서전락 시급

이즈음 우리교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유인물은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시내의 수다한 교회들과 지방의 교회들이 충현교회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이 비록 경미한 인쇄물이라 할지라도 참고·보관하려 한다. 「충현」지나 「청년」지, 「충현대학」이 외부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것도 그 한 보기이다. 문서활동에 관심있는 우리교회 교역자·제직원들 중에는 교회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게 좋은데 충현교회는 문서행정 문서선교면에서 특색을 지니는 교회가 될 수 없겠느냐고 한다. 문서(文書)에 대한 모든 것은 충현교회에 가 보면 된다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7) 출판부·문서관리부의 신설

며칠 전, 교육위원회 행정분과 주관으로 종합감사가 시행될 때, 체계있는 문서취급규정의 시급성이 감사자와 수검자 간에 오갔다. 더우기나 우리의 문서들 중에는 오래 전에 교역자가 바뀌었는데도 정정되지 않고 버젓이 얼굴을 들고 나오는 유인물이 눈에 띄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오늘의 문서들을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당회나 제직회에 출판부나 문서관리부를 신설할 때 이를 강력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역공파

◇ 12월 공파 ◇

제 5 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요 20장, 고전 15장
찬송/새 184(합 145)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터가 된다. 그러기에 4복음서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도 고전 15:14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다.

1. 부활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증명했다(로 1:4).

②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로 5:10)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전 15:17).

③ 그 결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

④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 줄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할 것(즉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을 증명하였으리 또 이를 믿을 수 있게 했다(요 14:19).

2. 승천하신 그리스도

눅 24:50-51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다가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였다. ①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우신 것을 보여주며, ② 이후부터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게 될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중보적 역할이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난 영원한 것임을 보여준다(참고, 히 7:25).

3. 다시오실 예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참고 행 1:10-11).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이며, 또 이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 날에는 산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변화되는 날(빌 3:21)이기도 하다.

4. 마지막 심판

인류의 마지막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마 24, 25장 참조) “심판”(diakrino)의 뜻은 “구별한다”이다. 따라서 주님은 염소와 양을, 선과 악을 구별하실 것이다.

제 6 장 성령론

성경/요 14:15-27, 행 2:1-41
찬송/새 200(합 160)

“성령을 믿사오며”

요 14:16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다른”(allon)은 동질의 뜻으로 성령님 이외의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그러나 동질의 제3위인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보혜사”란 어떤 분인가? 보혜사는 원문에 paraklētos(pará 가짜이+kletos=부름받은자)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가짜이 또는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을 도와주며 지켜주시는 이를 말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을 하나의 힘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님은 참 인격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성령님에게는 지와 정 그리고 의가 있다는 뜻이다(참고, 고전 2:10-11; 엡 4:30; 행 16:7)

2. 성령님은 삼위중 세번째 위(位)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즉 그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누가 그를 낳은 것도 아니고 다만 나오신 유출된 분이시다.

3.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여기까지 사역을 하신다.

①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시어 (시 119:18; 고전 2:15-16, 요 14:17) 죄를 발견케 한다.

②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은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요 3:5, 시 51:10)

③ 성도들을 가르치며(요 16:12-15), 인도한다(로 8:14).

④ 믿는 자들을 성화시키신다(살후 2:13, 벧전 1:2).

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게 도우신다(로 8:26-27).

⑥ 성령을 충만케 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행 1:8).

※새해 1월 구역공파는 1월 구역예배를 섬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세분이 장로취임·장로장립

—지난 달 24일, 본당에서 실시—

홍중섭 장로 취임 한경일·김종석 장로장립 등 세분 신임장로에 대한 취임 및 장립식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500여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2층 본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2차투표까지 거치는 등 어렵게 장로로 선출되었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1975년도 가을 수도노회에서 시취·승인을 얻게 되어 이날 감격스러운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김창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모든 순서는, 먼저 예배로 시작되었는데 김복출 목사(시내 창신교회)의 「죽도록 충성하라」(계 2:8-11), 는 제목의 설교의 말씀이 있었고 이어 장로와 교우에게 베푸는 서약과 안수기도를 거쳐 정식으로 총련교회 시무(치리)장로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공포하였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10월 24일 현재로 장로의 수는 시무(치리)장로 27명 공로장로 2명, 중경장로 5명이 되었으며, 특히 젊고 패기있는 이들 신임 장로들의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홍중섭 장로>



<한경일 장로>



<김종석 장로>

주일학교 종합감사 실시

—지난 26일 4개 분과로 나누어—

교육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예정대로 주일학교 11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교과과정·재정·행정·행사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 이날 감사 결과가 종합되어 분석평가중이며 그 결과는 1976년도 주일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리라 한다.

건축에 100만원 보조키로

—남전도회 지교회 금현교회 위해—

남전도회 개척교회인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용리 소재 금현교회(송석법 전도사 시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우리교회에서 총공사비 100만원 전액을 보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보조금을 위하여 남전도회에서는 특별히 60만원을 보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40만원은 교회 재정에서 보조하기로 하였는데 금현교회는 현재 예배처소가 없어 마을회관을 임시로 빌려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고등부 선교음악회 성황

—따로 21,000원 현금 해외선교비에—

지난 1일 오후 대예배실에서 고등부성가대 72명이 「제1회 선교음악회」를 열었다. 이효은 집사의 지휘와 이승순 선생의 반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550여명의 성도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제1부 경배의 시간에 이어 제2부 찬양의 시간의 프로그램을 보면 칸타타 「소돔과 고모라」/김두환 곡」을 비롯하여 합창, 중창, 독창, 기악연주 등 짜임새있고도 다채로웠다.

고등부에서는 따로 해외선교를 위한 자선헌금 21,000원을 거둬 해외복음선교회에 기탁하였다.

부흥회 인도차 출국

—당회장 김창인 목사—



<김창인 목사>

지난 10월 29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부흥회 인도차 대만을 향해 떠났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리라 하는데 이번 일정은 지난 봄에 실시하려다 사정상 미루어졌던 것이 이번에 실현된 것이다.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계획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예정대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기도하여야겠다.

신성종 강도사

목사안수 받아



<신성종 목사>

신성종 강도사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수도노회가 열린 우리교회 본당에서 베풀어졌다.

신성종 목사는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69년 신학연구차 도미(渡美)하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에서 「볼트만 비판」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템플대학교에서 「바울의 선교방법과 토착화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박사(Ph. D.) 학위를 받고 1974년 6월 귀국한 이래 출몰 우리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대학부를 지도하며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직과 「충현」지주간직도 맡고 있는데 이종숙 사모님과 슬하에 두 아들(인성, 인수)을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신년도 임명수 크게 늘듯

—권사 및 남녀 서리집사—

지난 10월 21일 열린 당회에서는 신년도 권사 및 남녀 서리집사의 수를 크게 늘려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추가 임명 권사가 15~20명선, 남녀 서리집사가 510~530명선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11월 중으로 후보자 명단이 작성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임명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임명된 권사는 22명, 서리집사는 470명(남 130명, 여 340명)에 비하면 현재 수준보다 숫적으로 상당히 증가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권찰수도한 대를 증가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안을 작성중이라고 하며 이날 또한 결정된 제직과 교사등의 임명 일정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7일—권사 및 서리집사 임명 12월 14일—구역장 및 권찰 임명, 12월 21일—주일학교 교사 임명, 12월 28일—성가대원 임명.

추계 수세자 모두 352명

—10월 19일 성찬식도 배풀어—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문답에 이어 17일 오후에는 모두 352명(남 129명, 여 223명)에게 성례식이 배풀어졌다. 이는 작년 추계성례식의 수세자 315명에 비해 37명이 더 증가된 숫자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유아세례 45명(남 22명, 여 23명), 입교 12명(남 5명, 여 7명), 학습 161명(남 57명, 여 104명), 세례 133명(남 44명, 여 89명) 계종 1명(남)이다.

한편 10월 19일 I·II·III부 예배 때에 실시된 추계 성찬식에는 모두 2,479명(작년 2,176명)의 세례교인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다시한번 구속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기었다.

성황이룬 첫 친교대회

—2,300여 성도 한자리에—

「제1회 총현교회 친교대회」가 예정대로 지난 10월 9일(목) 五山중고등학교 교정에서 2,300여명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주 한에서의 긴밀한 성도의 교제로 6천여 성도의 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또 각부별로 실시하는 각종 친교행사를 통합 실시함으로써 예산과 교인전체의 친교 등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판단 아래 실시된 이번 친교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교회 각부서가 총동원되어 준비를 하였고 10월 13일 있었던 사후평가회에서는 더욱 보강하여 앞으로 매년마다 실시하오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입장식·가장행렬·각종경기·응원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유상근 통일원장관의 축사도 있었다. 특히 일일매점 「인도네시아의 집」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날 영예의 종합우승은 서군(서부구역)이 차지하였다.

「믿음의 재검토」 주제로

—남전도회·청년회 심령부흥회—

남전도회와 청년면려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기 심령부흥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박희천 목사(내수동 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본당에서 열렸다. 일일평균 730여명이 모인 이번 부흥집회를 위하여 청년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은」, 「믿음의 기초」, 「믿음과 심령의 변화」, 「믿음과 말씀」 등이었다.

토막 소식

*11월 첫주일부터 저녁 예배시간은 오후 7시, 새벽 예배시간은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교회 전도부는 총동원전도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드레 회모임을 내일 오후 7시 교회에서 갖는다.

*지도자양성부 제 8기 45명(남 15명, 여 30명)의 수료식이 23일 오후 7시에 거행된다고 한다.

*여성성가대는 오는 21일 강원도 철원고석정에서 대원들을 위한 친교회를 갖는다.

*영아부는 지난 6일 졸업생 학부모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었다.

*유치부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한 특별순서를 준비중에 있다.

*유 초등부 합동 성령감동대회가 지난 2일 오후 유년부실에서 열렸다.

*초등부는 지난 10일 530여명의 제적생에 대한 추계대심방을 끝내었다.

*중등부는 지난 10월 10일 장충동 일대의 각 가정에 전도지를 배부했다. 60명이 참가.

*중등부는 오는 15일 오후 유년부실에서 추수감사절 기념 춘극경연대회를 연다.

*중·고등부 합동으로 지난 10월 25일 1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도에 관한 성화감상을 하였다.

*고등부는 1976년도 전반기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면려회 총회를 오는 16일 연다.

*고등부는 오는 22일 오후 추수감사절 기념 춘극발표회를 열며 23일에는 안양 소년원을 방문한다.

*고등부는 오늘 예비교사 준비기도회를 고등부실에서 3부 예배 후에 갖는다.

*대학부는 오는 22일 오후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음악과 연극 발표를 한다.

*청년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다락원 마을에서 일제전도를 실시한다.

*청년부는 오는 30일 특강을 연다. 차영배 교수/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적 의의

*장년부는 지난 10월 26일 유년부실에서 160명(남 20명, 여 140명)이 모여 창세기론 내용으로 성경퀴즈대회를 열었다.

기자석

○...편집실은 벌써 76년도를 맞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편집에 필요한 참고서적이 들어오고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자리도 바뀌고...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가 아니고 조금씩 편집실에 체제가 잡히는 것 같다. 평범하면서도 마음의 동물이 될 수 있고 더 많이 읽히지는 「충현」지가 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심정... 성도들과 더 가까운 「충현」지가 만들어지기를 간구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종합이어서일까? 유한성과 무한성의 진통에 시달린다. 간절한 바램에 대한 모욕적인 실망, 진실을 비웃는 허위와 위선... 그러나 깨치고 부서지고 켜어져서서 군중이 성장하는데 신자의 몇(?)이 있는게 아닐까?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의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 바로 그거다. 신자의 몇은.

○...「충현」지가 본교회보다 외부에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본교회인들의 관심도가 질지 못하다는 증거며, 자기가 속한 부(部)의 소식이 좀더 많은 지면, 굵은 활자로 나오지 못함은 자신이 뉴우스 자료를 제공치 않음이며, 「충현」지가 간혹 둘째주일에 나오게 됨은 원고를 청탁받으신 분들이 약속기일 내에 원고를 내주지 않음이다. <혜>

○...정숙하고 엄숙한 가운데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음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배시간에 유아나 어린이들이 내는 소음을 덜기 위해 특별히 유모자석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심의 망각지대가 있으니 곧 3층 별판이다. 특별히 유모자를 위해 별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별판을 사용토록 하자. 그런데 이 별판 3층에는 다 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황>

○...요사이 교회 게시판들 돌아보노라면 한결 눈길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마치 낙서판처럼 무질서하기만 하던 종래와는 달리 각종 포스터가 어찌나 멋질지 어떤 것은 품위까지 있어 수준급이다. 아무튼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포스터를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그려진 조잡함이 더러 보인다. 환경미화라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성의 없이 그려진 포스터나 안내문은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랴 <안>

○...살피자! 조금씩 전통적인 교회의 편습에 젖어드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에게 느끼는 구습의 안타까운 타성과 새 건해인 현실의 교회와 사회변을 두절계 의식하는 행동의 연쇄반응을 갈수록 의식하는 것은 이 사람만의 신경과민일까? <재>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 내 맘과 내 힘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이 일회적인 생의 최고 행복이 아닐까. 「청년」지에서 일한 인연으로 해서 이번에는 「충현」지로 옮겨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린다. 일단 들어왔으니, 이곳에 보내 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며 우리 「충현」지가 모름지기 6천 성도, 나아가서는 4백만의 신자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충현」이 되는 비전을 향해 뛰고자 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붙은 연필로 내 인생을 교정보실 때 나의 모든 잘못은 지워주시고 들쭉날쭉했던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며 혹 뒤바뀌어 버린 내 뜻을 옳게 바꾸어 주시고 또 잔뜩 커진 내 자아는 낮추어 주심으로 내 인생의 「끝」을 깨끗한 원고로 다시 쓰셔서 하나님께 넘겨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

편집하고 나서

◇...어느덧 11월이다.

7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11월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초조」와 함께 「집착」을 곁하여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주어진 1년, 75년을 거의 다 소모했다는 사실만이 쓸쓸한 바람과 함께 명그라니 남겨진다. 우여곡절 속에 11월호를 편집하고 후기를 쓰는 마음이 차분해짐은 나머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 한달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목사님의 <특별 기고>가 이번호에 눈에 띈다. 계획과 이론이 아닌, 실지 일선에서 된 선교사님의 생각, 선교정책을 볼 수 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 또한 해외선교를 지원하는 우리들,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글이다. 선교는 특정한 몇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총력적인 것임을 깊이 인식하자.

◇...다음 해를 위한 준비가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주일학교에도, 각부서에서도, 편집실에도 이런 준비가 일어나고 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욱 나은 「충현」지

를 위해 몇가지의 계획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나 이 일은 우리 「충현」지 담당자들만이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니 다소 불안하기도 하다.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앞으로의 「충현」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한국의 기독교인을 위한 것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깨닫는다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영>

사령(辭令)

명, 「충현」지 기자

오 태 용 <편집부>

1975년 10월 1일부

—표지설명—

지난 10월 9일 은교우가 모여 제 1회 친교대회를 가졌다. 2,300여명의 「충현」의 식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 날의 일들을 담은 사진첩을 만들며 몇장을 골라왔다. 육심으로는 화보라도 몇 페이지 내고 싶었는데...

표지의 사진으로 아쉬움을 달래본다.